

“성장률 둔화, 中 경제엔 오히려 득될 것”

장권 푸단大 중국경제연구소장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중국 경제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장권(張軍) 중국 푸단(復旦)대 중국경제연구소장은 이런 의외의 말을 했다. 중국에서 기업구조개혁, 경제체제 전환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장 소장은 아시아 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했다. 그의 부연 설명은 이랬다.

“낮은 성장률은 균형·안정 성장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구조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간 자본·노동력을 투입해 고속 성장한 중국 경제가 구조 조정을 거쳐 기술 혁신 등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체제로 전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란 말로 표현했다.

장 소장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내놓겠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높은 7%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소장은 또 “물가 상승과 실업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성장률을 7~8%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앞으로 10~15년간 중국은 7~8% 성



성형주 기자 장권 푸단대 중국경제연구소장은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며 “낮은 성장률 덕에 내부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균형·안정성장 두목표 겨냥 구조개혁 촉진 기회로 작용

1인당 소득, 美의 10~20% 수준 향후 10년간 7~8% 성장 가능

당국의 통제밖 그림자 금융 문제 더 커지기전 해결해야”

장이 가능하다”면서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여전히 미국의 10~20%에 머물러 있고, 총 인구 대비 도시 인구 비율인 도시화율도

52%로 세계 평균(75%)보다 낮아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중국 위기론은 서구에서 만들어낸 허상으로 90년대부터 제기됐지만 현실화된 적은 없다”며 “중국 경제는 강건하고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지는 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정도를 10으로 놓았을 때 현재 중국 경제는 3~4 정도에 있는 걸로 평가했다. 그 근거로 선진국보다 건전한 공공부채와 재정수지 구조,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한 통제 등을 들었다. 다만, 규제 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금융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장 소장은 “실제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정체가 불투명하고 통제 밖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 금융 당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소장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은 2020년이면 끝날 걸로 예상했다. 장 소장은 “국유기업 등 기득권들의 반발이 걸림이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조만간 설립될 경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형석 기자